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6. 26. (금)

총 4페이지

2026년 6월 26일 울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9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울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4장

담당자

정진미 센터장

연락처

052-913-1388

성 명 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로부터의 보호와 대응,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리고 지원체계의 미흡함!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시설화, 예산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SNS, 채팅 앱,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조건만남, 협박과 갈취 등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25년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의 피해 지원 건수는 39,632건에 달했다. 성착취 피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동안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인력과 예산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울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인구는 128,492명으로 전체 인구 1,088,959명의 11.8%로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와 온라인 공간을 오가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도시인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다양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구·중구·동구·북구와 울주군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적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은 각종 SNS와 채팅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온라인 그루밍과 친밀감 형성, 경제적 유인 등을 통해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피해는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아동·청소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은 단순한 상담 몇 차례로 해결되지 않는다. 긴급 구조와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심리 치료, 학업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자립 지원까지 장기간의 통합적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28,492명의 울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현장의 헌신만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 예방과 조기 발견, 긴급 대응, 회복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

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투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을 즉각 확충하라.

단 3명의 상근 인력으로 예방, 발굴, 긴급 구조, 상담, 사례 관리, 아웃리치,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피해 규모와 복합적인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하나. 정부는 위탁 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를 독립적인 전문 지원 시설로 전환하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은 단기 사업이 아닌 지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 책임 사업이다. 3년 단위 위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심리·정서적 회복뿐 아니라 의료, 법률, 학업, 가족관계 회복, 자립 지원 등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13만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성착취 피해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개입이 가능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대다수가 SNS와 채팅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와 불법 콘텐츠 차단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더 이상 현장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

울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디지털 성착취의 거대한 위험 앞에서 울산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연대하며 현장을 지킬 것이다.

2026년 6월 26일

울산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